

“혁신적 커뮤니케이션 툴 “웹” 활용, 기업 경쟁력 제고를”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며 우리 생활에 실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야기된 이른바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사업 방식을 혁신하는 외에도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케이션과 오락 및 교육방법을 제기하고 있다.

조 성 대 (주)한국실리콘그래픽스 대표이사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며 우리 생활에 실제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야기된 이른바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사업 방식을 혁신하는 외에도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케이션과 오락 및 교육방법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 혁명으로 도래된 정보 시대(Information Age)에 대중 매체 기술은 강력한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어 개인화된 요구에 따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대중매체의 단절된(Disconnected)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범세계적 정보 고속도로를 이루는 상호접속(Interconnected) 기술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반구조(Infrastructure)는 정보의 소통을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소비자에게서 다시 공급자에게로, 개인에게서 개인으로 다원화시키고, 지리적인 거리나 국경과 같은 전통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

정보혁명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것은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다.

70년대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매 7년마다 10배씩, 90년대 이르면 매 3년만마다 10배씩 높아졌으며, 반면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돌아오는

10년동안 성능은 무려 1천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주얼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결합은 디지털 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경우,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에 접속되면 개별 사용자는 자신의 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통해 증폭된 성능을 만끽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더 커지고 정교해질수록 데스크탑 컴퓨터 시스템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2D와 3D 그래픽스 이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오디오 및 텍스트를 결합하는 대화형 비주얼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범세계적 정보 하부구조의 확장을 추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3D 웹 환경 및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속속 소개되면서 월드 와이드 웹은 더욱 풍부한 매체를 갖는(Media-Rich) 유용한 툴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사용자들은 웹을 통해 3D 가상 환경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동작과 음향이 결합된 페이지를 생성하고, 정보를 실시간에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다.

웹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90년대초만

해도 인터넷상에 단 200개의 호스트 컴퓨터만이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95년 8월에는 웹 사이트의 수가 10만개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 집계된 것으로는 40만개를 넘어섰다.

또한 2만 1천개의 기업체가 등록된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매일 평균 70개의 새로운 기업 사이트가 웹에 추가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이 갖고 있는 힘은 그것이 단일 요소(Entity)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웹은 여러 벤더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공동의 환경을 생성함으로써 기존에 몇몇 업체에 의해 좌우되던 컴퓨터 업계를 일시에 평정했다. 이렇게 개혁의 새로운 엔진이 된 웹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매체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낡은 사고방식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웹은 대화형 대지탈 시장이라는 새로운 세계 시장을 열었으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On-Demand) 정보 및 오락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월드 와이드 웹 기술은 인터넷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내에 구축하는 사설망인 인트라넷(Intranet)은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비용효과적인 디지털 기반 구조이다.

인트라넷을 활용하면 전세계 직원들간에 정확하고 일괄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타이핑이나 인쇄, 배포 등에 드는 불필요한 수고와 우편 요금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인트라넷은 웹 기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나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기업내 사용자들과 접속할 수 있다.

일례로 실리콘그래픽스 본사에 구축된 인트라넷의 이름은 “실리콘 정션(Silicon Junction)”이다.

전세계 실리콘그래픽스의 모든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이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으며, 보안을 위해 실리콘 정션 바깥으로 방화벽이 설치됐다.

전세계 실리콘그래픽스 직원들은 실리콘 정션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홈 페이지는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시각적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실리콘 정션은 회사 소식, 영업 자료, 온라인 트레이닝, 업무관련 서식, 회사 정책등 분량으로는 7만5천페이지가 넘는 정보를 실시간에 업데이트해 제공하고 있다. 활용 빈도를 보면, 매일 약 3천명의 각기 다른 내부 사용자가 약 8천번가량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웹 기술은 시각적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직원들이 멀티미디어와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인터페이스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실리콘그래픽스 직원들은 실리콘 정션상의 실리콘 세일즈(Silicon Sales)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방식의 영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모든 영업 자료는 이 사이트를 통해 관리되며, 직원들은 이 사이트에 접근해 온라인 가격표와 시장 분석,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마케팅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국내 현지법인인 당사의 경우, 실리콘 정션과는 별도로 “웹 플래닛(Web Planet)”이라는 이름의 인트라넷을 구축, 사내 커뮤니케이션 톨로 활용하고 있다.

이제 각 기업에서 할 일은 정보 혁명의 산물인 인터넷(Internet)과 월드 와이드 웹과 같은 강력한 톨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정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나갈지 숙고하고, 범세계적 정보 기반구조를 구축함에 있어 대두되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한다. ◆